

“한표 행사하고 多누리세요”

유통업계, 총선 투표 참여 다양한 이벤트 전개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발길을 부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유통업체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1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광주점에서 선거 당일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피코니 뜻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뜻자리는 350명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현대백화점 충청점도 선거 당일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사은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거 할인 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선거 당일 투표 확인증 할인 프로모션 등 투표 참여 장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는 오는 13~17일 이번 제20대 총선 투표 확인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고매이 484에서 사용 가능한 2000원 할인권을 증정한다.

아이파크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13일 당일 화장품을 구매한 고

객이 투표 확인증을 지니고 계산 포스터 을 경우 화장품 샘플을 선물로 증정한다.

결혼정보업체 기연은 투표 독려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연은 투표 후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올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앱 ‘천만모여’ 3개월 무료 이용권(1년 이용가 99만원)을 증정키로 했다.

사오미의 공식 파트너인 (주)코미트레이드의 자회사 M4C는 성남 중원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한다.

M4C는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찍어오는 성남 중원구 유권자 500명에게 ‘사오미 5000’ 보조배터리를 1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13일 오후 2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서문에 있는 사오미 판매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자사 제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면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금강제화는 ‘랜드로바 고어텍스 서라운드’ 여성화를 출시했다.

금강제화, 직장여성 위한 ‘랜드로바 고어텍스 서라운드’ 출시

전방향 방수·투습 기능 갖춰 ‘쾌적한 발 유지’

금강제화는 페트리파 스티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직장 여성들을 위해 ‘랜드로바 고어텍스 서라운드’ 여성화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랜드로바 고어텍스 서라운드 여성화는 내외에만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했던 일반 고어텍스 신발과 달리 밀짚에도 방수·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멤브레인 소재를 적용해 오랜 시간 신었을 때도 편안함이 유지된다.

또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 꽃 모양으로 편침 처리한 바닥창에는 프로텍티드 레이어라는 겉고한 망사 소재가 밸브를 보호한다. 더불어 쿠션감을 주는 초경량 소재를 바닥창에 사용해 별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기능성 신발에서 자칫 부족하기 쉬운 미적 요소도 갖췄다. /이성주 기자

11번가, 직매입 시도…이천 물류센터 가동

11번가는 직매입 사업을 시도한다. 11번가는 40여명의 전문 상품 기획자들이 선별한 직매입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와 고객만족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 유통기간 등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직매입으로 유통단계가 줄면서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직매입 사업을 위해 11번가는 이달 초 경기도 이천에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했다. 지상 4층, 총면적 3만m² 규모의 물류센터는 월 40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모아 한번

에 배송해주는 ‘합포장 서비스’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갖췄다.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1만 여건, 월 25만건에 달하는 ‘합포장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11번가의 설명이다.

SK플래닛 장진혁 MP부문장은 “직매입 사업을 통해 기존 오픈마켓의 정형화된 틀을 뛰어넘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개념 배송서비스도 강화해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는 직영몰오픈을 기념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의류/잡화 등을 파격가에 판매하는 ‘배송도 할인도 한방에’ 기획전을 이날부터 진행한다. /이성주 기자

전개공-LH전북본부, 저소득층 주거환경 지원

18억원 투입 공공임대주택 도배·장판교체 추진

전북개발공사와 LH전북본부가 공공 임대 주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총18억원을 투입, 6개 단지 3,700여호를 대상으로 도배·장판교체 등 공공임대주택 세대내외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차인 대표와 연 2회 이상, 관리소장단과 분기 1회 이상 소통행사를 갖고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30년 국민임대로 운영중인 전주명화, 의산승화, 지안리즈 등에 대해서

장애인 전동차통로 공간 확보, 임주민의 쉼터 파고다 보수, 단지 안내도 교체에 이어 현재, 음식물쓰레기장 비가림시설 6곳에 대한 공사를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LH전북본부도 기구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3%이하(2인기준 월119만원)인 자가기구를 선정해 주택노후

도,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350~95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25억원이며 2194호를 개보수·저소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전북본부는 전주시 등 15개 지자체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시공을 맡을 업체를 선정중에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더 나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가기구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꽂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전주롯데백 ‘해외명품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종구)은 13~17일까지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해외명품전’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해외명품전에서는 명품의류 스크래치 상품 40~70%, 해외집화 및 선글라스 20개 브랜드상품도 10~40% 까지 세일판매한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100명 고객께 60/100/2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3/5/10만원 증정과 당일 100만원 이상 롯데카드 구매 시 6개월 무이자 등 풍성한 사은행사도 펼쳐진다. /신광영 기자

전북경진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업체 모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우수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확대와 성장지원을 위한 2016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이달 16일부터 모집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 지원해 소규모 독립점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내 정상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외식업은 2년,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1년 이상 운영업체이다.

업체 선정은 학계, 프랜차이즈업체, 창업컨설턴트 등 전문기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심화 컨설팅)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화(063-717-1301)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중진공 전북서부지부, 내일

글로벌퓨처스클럽 정기총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는 오는 14일 글로벌퓨처스클럽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글로벌퓨처스클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결성됐다.

도내 내수기업과 수출초보 중소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며, 현재 15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회원사들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 노하우 공유, 전북서부 지역 수출 정보 제공, 회원사 공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회원사의 수출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의는 중진공 전북서부지부(063-460-9823)로 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